

청년 독일파(Das junge Deutschland) 연구*

- 금서 조치를 받은 작가에 한정하여 -

조 창 섭**
(독어교육과)

I. 서 론

부르봉 왕조의 반동적인 통치 체제를 종식시킨 1830년의 프랑스 7월 혁명때부터 독일에서 시민 혁명이 일어난 1848년까지의 시기는 자유주의 사상과 반동적 복고 세력이 심한 충돌을 빚었던 시기이다. 당국은 자유주의자를 탄압하기 위한 기본법인 칼스바트 결의(Karlsbader Beschlüsse)¹⁾에 입각하여 독일에서 이러한 사상을 표방하는 지식인을 탄압하였다. 이들에게 가해지는 당국의 탄압은 필연적으로 정치 투쟁을 야기시켰다.²⁾

이러한 탄압의 결과로 문인들 중에도 문학을 통하여 정치 현실을 변혁시키고 사회 변혁을 꾀하려고 하는 작가들이 생겨났다. 이들의 투쟁 목표는 보수 반동 세력에 반기를 들어 국가 권력과 교조주의적인 기독교의 정인지배로부터 해방을 쟁취함으로써 지배세력이 유포시킨 허구적인 도덕률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³⁾ 이와 같

*이 논문은 1996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발전기금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서울대학교 독어교육과 교수

1) Vgl. Hrsg. Werner Conze & Volker Hentschel: *Ploetz Deutsche Geschichte*, Verlag Ploetz Freiburg/Würzburg, 2. Aufl. 1980. S. 173.

칼스바트 결의는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발의하여 독일 연방(Deutscher Bund)의 의회가 1819년에 가결한 법으로 자유주의자들을 탄압하고 학생 운동을 근절하는 데에 이용되었다. 얀(Friedrich Ludwig Jahn)과 같은 자유 사상을 지닌 애국지사들이 체포되고 아르트(Ernst Moritz Arndt)와 같은 교수들이 교직에서 쫓겨났다. 탄압은 출판에 대한 검열에서 시작하여 대학생 조합의 해체와 집단 행동의 금지, 그리고 교수 활동의 감시 등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2) Vgl. 조창섭: 현실주의 독일문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S. 15ff.

'청년 독일파'에 속한 작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작가들은 이러한 정치 상황 때문에 정치와 관련된 시사 문제를 작품화하지 않고 향토색이 짙은 소시민 세계를 작품화하거나 또는 역사 사건 및 전설을 작품화하는 비더마이어에 속해 있었다.

3) Vgl. 조창섭: 청년 독일파의 시대 배경과 사상 배경 연구, 섬인 이동승 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1996, S. 425-455.

'청년 독일파'에 속한 작가들의 작품 속에는 군주제를 공화정이나 입헌 군주제로 변혁시키고 관료제도를

이 문학을 통한, 또는 문인의 정권 장악을 통한 사회 변혁을 꾀하였던 3월 전기 시대의 작가들을 ‘청년 독일파’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청년 독일파’에 속한 작가들은 개성이 독특한 사람들이어서 회합을 갖거나 어떠한 문학 단체를 만들 정도로 친밀한 사이가 아니었다. 이러한 작가들을 문학의 한 유파에 묶게 된 것은 이들이 3월 전기 때의 반동 보수 세력에 저항하는 문인들이 표방한 투쟁 목표에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볼프강 멘첼(Wolfgang Menzel, 1798-1873)⁴⁾이 하인리히 하이네(Heinrich Heine), 칼 구쯔코(Karl Gutzkow), 하인리히 라우베(Heinrich Laube), 루돌프 빈바르크(Rudolf Wienberg), 그리고 테오도르 문트(Theodor Mundt) 등의 작품에 나타나는 자유주의 사상이 위험하다는 것을 지적하여 1835년 12월 10일에 프랑크푸르트 연방의회가 이들 5명의 작가들에게 출판 금지령을 내리게 한 것에서 연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금서령이 내릴 때까지는 ‘청년 독일파’란 존재하지 않았고 그후 금서령을 받은 작가들을 ‘청년 독일파’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이들의 작품 주제는 다음과 같다.

- 1) 계급타파
- 2) 현대적인 법치국가의 실현
- 3) 종교의 자유
- 4) 언론의 자유
- 5) 여성 해방과 유대인에 대한 차별 철폐

이러한 주제를 형상화한, 금서령을 받았던 ‘청년 독일파’의 문학 세계를 살펴보고 한다.

‘청년 독일파’가 문학의 사조 명칭으로 통용되면서 3월 전기에 활동하던 현실 참여적 문인들인 루트비히 뵈르네(Ludwig Börne), 호프만 폰 팔러스레벤(Hoffmann von Fallersleben), 페르디난트 프라이어히라트(Ferdinand Freiligrath), 게오르크 헤

분식시키려는 정치 개혁파, 정치적인·종교적인 특권층을 혁파하여 자유를 쟁취하고 법 앞에 모두가 동일하다는 평등 사상을 일반화하는 사회 개혁 등이 개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 개혁을 위하여 교육제도의 모순 제거 및 여성 해방 운동도 포함되어 있다.

4) Vgl. Hrsg. Prof. Dr. Hans Jürgen Geerdts: *Deutsche Literaturgeschichte in einem Band*, Volk und Wissen Volkseigener Verlag Berlin, 1971, S. 337.

멘첼은 괴테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 ‘청년 독일파’와 공통점을 지녔던 사람으로 그의 저서 「독일 문학, Die deutsche Literatur, 1827」에서 괴테의 천재성을 부인하면서 그의 작품을 국적이 없는 비도덕적인 작품이라고 공격하였다. 이러한 그의 논지는 ‘독일 청년파’나 참여문학자들에게 영향을 끼쳐 그를 따르는 문인이 많았다. 그가 코타(Cotta) 출판사가 발행하는 「문학 신보」의 발행인을 맡아보고 있을 때 작가가 되고자 열망하는 신인들이 그의 주변에 몰려들어 이들을 발굴하여 문단에 등장시키기도 하였던 인물인데 1835년 이후에는 ‘청년 독일파’를 비방하며 공격하는 작가로 변하였다.

르베크(Georg Herwegh), 게오르크 베르트(Georg Weerth), 아돌프 글라스브레너(Adolf Glassbrenner, 1810-1876), 게오르크 뷔히너(Georg Büchner, 1813-1837) 등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현실 참여적 문인들은 정치에 관여하여 정권을 장악한다는 정치적인 목표를 구현하려고 했다. 금서 조치를 받은 작가들이 구현하는 문학의 정치화와는 차이가 있는 정치적 목표와 미학적 목표를 지니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금서 조치를 받은 '청년 독일파'의 문학 세계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하여 다루려고 한다.

II. 본 론

1. 유파의 명칭을 도출한 작가

키엘(Kiel) 대학의 강사이던 루돌프 빈바르크(Ludolf Wienbarg, 1802-1872)는 24회에 걸쳐 강의한 「미학적 출정(出征), Ästhetische Feldzüge, 1834」의 서문에서 '청년 독일파'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⁵⁾

그의 이 강의록에는 '청년 독일파'의 문학 강령이 담겨 있다. 즉, 작가들은 시류에 부응한 정치 논쟁에 직접 참가하여 진부한 독일 관념론을 극복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개진되어 있다. 이 글에 사용된 언어는 신문의 문예 오락란에 적합한 언어로 배려되어 있다. 이러한 언어는 보르네(Börne)의 「파리의 편지, Briefe aus Paris」와 하이네의 「여행 화첩, Reisebilder」 등에 나타나는 언어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는 프랑스를 모범으로 삼아 독일을 개혁하여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도입하려 하였던 진보적인 작가로 문학을 정치 투쟁의 선동 수단으로 삼아 작가가 정치 현실에 개입하도록 촉구하면서 작가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작가는 이제 아름다운 정신의 유희자가 아니며 천진스럽게 즐거워하는 자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환상에 빠져드는 자도 아니다. 작가는 만인을 지배하는 시대 정신을 역사의 청동 펜으로 기술하여 삶을 책으로 엮는 자이다.⁶⁾

5) In: Karl Kunze & Heinz Obländer: *Grundwissen Deutsche Literatur*, Ernst Klett Verlag, Stuttgart, 1976, S. 38. Vgl. 조창섭: *현실주의 독일문학*, S. 180.

"지금까지 독일에는 도서관을 세워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여 보관하는 일에만 전념하였을 뿐이고 미래의 역사를 계획하는 노력은 없었다. 그러므로 이 강의를 옛 독일이 아니라 청년 독일(Das junge Deutschland)에게 바친다"라는 서문에서 빈바르크는 청년 독일이란 단어를 사용하였으며 이 단어가 후일 문학 유파를 지칭하는 용어로 통용되었다.

6) In: Fritz Martini: *Deutsche Literaturgeschichte von Anfang bis zur Gegenwart*, 황헌수역, 을유문화사, 하권, 서울. 1989, S. 36.

그러나 그는 정치 현실을 개혁하려는 의지를 작가가 어느 정도까지 표방할 것인가에 대하여 '독자의 정치 감각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로 제한하고 있어서 작가가 참여하는 정치 활동의 폭은 엥겔스(Engels)가 비판한 것처럼 '미성숙한 입헌주의나 공화주의'의 열망이라는 추상적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러한 그의 성향에도 불구하고 구쾰코우와 함께 프랑크푸르트에서 발행하던 급진적인 성향의 잡지 <독일 레뷰, Deutsche Revue> 때문에 멘첼의 고발에 의하여 1835년 프랑크푸르트 의회로부터 금서령을 받고 국외로 추방되었다.

하인리히 라우베(Heinrich Laube, 1806-1884)는 <고상한 세계를 위한 신문, Zeitschrift für die elegante Welt>에 게재한 그의 기고문에서 1833년에 '청년 독일의(jungdeutsch)'라는 형용사를 제일 먼저 사용하였다. 빈바르크가 「미학적 출정」에서 사용한 '청년 독일'이란 단어는 독일의 해방 전쟁 이후에 시의(時宜)에 맞지 않게 프랑스인에게 증오를 퍼부으며 편협한 애국주의를 표방하는 독일의 젊은 대학생들을 뜻하였다. 그러나 독일의 지배 계급인 군주를 위시한 귀족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대변함은 물론, 위에 언급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던 '청년 독일'이라는 단어가 프랑스의 마르세이유(Marseille)를 활동무대로 삼고 있는 이탈리아의 혁명적인 망명 기구 <청년 이탈리아 La giovine Italia>와 스위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폴란드의 <청년 폴란드, Das junge Polen>의 이름과 관련 지워지면서 정치적인 의미를 띠게 되었고, 곧이어 저항적 의미로 전이되었다. 라우베는 자신의 6개월에 걸친 감옥 생활⁷⁾과 폴란드 봉기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서술하고 있는 자서전 소설이자 자기의 대표 작품인 삼부작 소설에 「청년 유럽, Das junge Europa,⁸⁾이라는 표제를 붙임으로써 '청년 독일'에 대한 시사성을 더해주고 있다.

그는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통일 국가를 이루는 것이 창작의 목표이어야 한다고 단정하고, 하이네의 모범에 따라 기행문을 집필하여 신문과 잡지에 기고하는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장·단편 소설을 창작하였으며 문학 평론도 하였다. 또한 극장측의 요구만 있으면 언제라도 드라마를 제공할 정도로 다작(多作)한 극작가이기도 하였다. 그가 제시한 민주주의 방법이란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을 뜻하였다. 정치적 반동기에 가해지는 탄압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개성이 무시되고 획일적인 사고 방식을 강요받고 있지만 작가만은 자기의 개성을 살릴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7) 라우베는 1827년 대학생 조합(Burschenschaft)에서 활동하다 적발되어 퇴학을 당하였던 관계로 뒤늦게 체포되어 7년형을 구형받았으나 뤼클러(Pückler)의 노력으로 감형을 받아 6개월간 감옥 생활을 한 작가이다.

8) 프랑스의 생 시몽주의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 이 소설은 '청년 독일파'의 간판격에 해당하는 소설에 속한다. 3부작으로 된 이 소설의 구성은 '현대적' 감각과 진보적인 생활 태도를 갖도록 유도하는 기능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

최근에 문화 분야에서 창작되는 거의 모든 창작품은 개성을 없애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단지 문학만이, 독일 문인의 현대적 창작품만이 이를 저지할 수 있다.⁹⁾

그는 민주주의 방법을 통해 통일 국가를 형성케 하는 것이 문학의 과제라는 사상을 담은 작품을 창작하다가 1835년 프랑크푸르트 의회로부터 금서령을 받으면서 '청년 독일파'에 속하는 중심 작가가 되었다. 그러나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간결한 문체와 등장 인물의 재미 있는 심리 묘사, 그리고 방대한 창작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에 스며 있는 이러한 경향성으로 인하여 그는 청년 독일파의 범주를 넘어서면, 의미를 상실하는 작가가 되었다.

테오도르 문트(Theodor Mundt, 1808-1861)는 열렬한 공화주의자로, 시민 혁명의 본산인 프랑스와 특히 파리(Paris)를 흠모하는 소설가이자 언론인이었다.

문트는 당대의 정치 상황 때문에 타고난 문학적 재능과 우직한 학문적 기질 사이에서 방황했고, 공화정을 열망하는 자유주의자이자 현존하는 군주 체제를 인정하는 지식인으로 비춰지는 이중적 성격의 소유자였다.¹⁰⁾

그는 헤겔의 미학을 계승하여 미술, 음악, 문학 등의 예술이 인간의 생각을 표현하는 상징적 수단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인간의 생각은 개인과 사회의 상호 작용에 의해 결정되고 유지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현대 사회에서는 영웅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영웅 예찬론은 전제 정치와 권위주의의 잔재로 불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트는 민족을 자유로 인도하는 것은 영웅이 아니라, 神의 가호와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쟁취되는 것이라고 하여 '청년 독일파'와 경향을 같이하고 있다.

그는 산문을 선호하여 「독일 산문 예술, Die Kunst der deutschen Prosa, 1837」에서 산문이야말로 개인과 사회의 의견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이상적인 문학 형식이라고 하였다. 그의 통속 소설은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나는 예외적인 것으로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역사 사건을 주제로 삼아 인상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다양한 생각들을 망라하고 있다. 「이중창, Das Duett, 1831」에는 은유를 활용하여 자유주의를 부르짖는 시대 정신을 그리고 있고, 「마돈나, 혹은 성녀와의 대담, Madonna, oder Unterhaltungen mit einer Heiligen, 1835」에서는 '짧은 한줌 인생

9) 라우베가 1834년에 집필한 것임.

Fast alle neueren Erfindungen der Kultur gehen dahin, die Individualität zu vernichten, nur die moderne deutsche Poesie der Prosaisten kann dem Einhalt gebieten.

10) 그는 1842년에 셸링(Schelling)의 추천으로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하는 강사(Privatdozent)가 되었다. 강사 선발 위원회에서 문트가 국가 보위(保衛)에 기여할 것이라는 서약을 하고 강사 자리를 얻었기 때문에 엥겔스(Engels)는 그의 이러한 행동을 배신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봉건 체제의 하인(下人)으로 전락한 문트에게 구토를 느낀다고 말하였다.

(Stück Leben)’을 부각시켜 생 시몽주의자를 서술하면서 예사롭지 않은 남녀의 자유로운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로운 남녀관계의 형상화와 공화주의에 대한 열망 때문에 멘첼의 고발에 의하여 1835년 프랑크푸르트 의회로부터 ‘청년 독일파’로 간주되어 금서령을 받았다.

2. 이 유파의 대표적 작가

하인리히 하이네(Heinrich Heine, 1797-1856)¹¹⁾는 ‘청년 독일파’가 정치 성향을 강하게 띠면서 예술의 존재 법칙을 무시하였던 것에 반해, 낭만주의의 영향하¹²⁾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창작 기법을 개발하여 청년 독일파의 거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중엽 독일 문학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

독일 문학사에 있어서 가장 성공한 서정시집으로 꼽히는 「노래의 책, Buch der Lieder, 1827」은 1827년까지 나온 그의 시정시들 중에서 우수한 것을 정선하여 뽑아 실은 시집이다. 여기에 실린 그의 초기 시들에는 ‘단조로우면서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die schlichte, innige Sprache)’와 ‘자연에 대한 감정(Naturgefühl)’, ‘정감어린 시심(詩心)(das stimmungsvolle Bild)’ 등의 낭만주의적 특징이 서려 있으며 또한 열띤 어조와 담백한 구성을 통해 선택한 소재의 내용을 알기 쉽게 표현하고 있다. 그의 시는 시어(詩語)와 표현하고자 하는 사상 내용이 이상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시심(詩心: Bild)과 리듬(Rhythmus), 시행(Versgestalt)이 자연스럽게 어

11) 하이네는 1797년 뒤셀도르프(Düsseldorf)에서 유대인 상인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뒤셀도르프는 그가 태어나기 2년 전인 1795년부터 1801년까지 프랑스 혁명군이 점령하고 있었으며, 1806년에서 1813년까지는 프랑스의 직접 통치를 받았다. 이 기간 동안에 민주주의적인 개혁이 이루어져 유대인도 독일인과 법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 하이네는 프랑스 시민혁명이 인간의 자연권을 옹호하고 독일인과 대등할 수 있도록 유대인의 권리를 찾아 주었기 때문에 그는 평생 프랑스 혁명의 신봉자가 되었고, 이렇게 하여 얻은 권리를 다시 박탈해 버린 프로이센에 대해선 증오를 퍼부으며 적(敵)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그는 괴팅엔 대학에서 1824/1825년에 걸친 겨울 학기에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지만 대학에서 자리를 얻거나 변호사를 하거나 간에 공직에서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유대교를 포기하여야 했기 때문에 1825년에 개신교로 개종하였다. 그는 자기가 개종하여 받은 세례 증서를 ‘유럽 문화에로의 입장권’이라고 후일에 술회하면서 유대인 차별에 대한 아픔을 자조적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12) 하이네는 낭만주의 색채가 농후한 그의 최초의 시집 ‘꿈의 화첩, Traumbilder, 1821」을 괴테에게 헌정하면서 괴테와 낭만주의자 슐레겔(August Wilhelm Schlegel)이 자기의 모범이었음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제가 쓴 하찮은 시들이 무가치한 것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후 쓸만한 작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작품이 있다면 저도 시를 쓸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겠습니다. 저는 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슐레겔에게 물어보라고 하더군요. 슐레겔은 괴테의 시를 읽어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저는 그 분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제가 장차 시인으로 제구실을 하게되면 그것은 다 당신의 덕분입니다. 저와 민중 전체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준 성스러운 당신의 손에 키스를 보내오며 ...

우리지고 있다. 슈베르트와 슈만과 같은 많은 작곡가들이 이들 시에 곡을 붙여 민중의 애창곡이 되었고 「로렐라이, Lorelei」와 같은 시는 민중의 마음 속에 매우 깊이 파고 들어 민요가 된 것도 있다. 전 세계에서 애송되고 있는 「로렐라이, Lorelei」¹³⁾는 아름다운 마녀 로렐라이(Loreley)에 관한 전설이 소재로 등장하고 있으며, 하이네는 이 전설의 외양 속에 이루지 못한 자신의 사랑을 각인하였다.

6련(聯)으로 된 이 시의 도입부에는 다음과 같은 주관적인 고백이 진술된다.

내가 이다지도 슬퍼하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난 모르겠네,
Ich weiß nicht, was soll es bedeuten, daß ich so traurig bin.

이 고백은 정취 그득한 한폭의 풍경화(風景畵)로 다음과 같이 전이(轉移)된다.

바람은 차고 날은 저문데, 라인강은 고요히 흐른다.
Die Luft ist kühl und es dunkelt, und ruhig fließt der Rhein.

이러한 정취와 풍경 속에서 로렐라이 바위에 대한 전설이 중간연(3연에서 5연까지)에서 서술되고 마지막 연에서 도입부와 중간 전설부분이 다시 멋있게 연결되며 끝나고 있다.

난 물결이 삼켜버릴 것을 아노라.
Ich glaube, die Wellen verschlingen.

「노래의 책」 2부는 「서정적 간주곡, Lyrisches Intermezzo, 1823」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다. 2부의 시들에서는 하이네 서정시의 특징인 반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반어를 통해 시민사회의 허위적인 가치들을 폭로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조소를 서술하였다.

그가 시인으로서 독자성을 확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민중을 움직여 감동시키는’ 것이 예술의 본질에 속한다고 생각한 그는 점차적으로 낭만주의에서 떨어져 갔고 「노래의 책」 2부에서와 같이 그의 시에는 풍자와 반어를 이용하는 어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시의 내용도 비판적인 반시민적(antibürgerlich)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그의 재치가 번득이는 유머와 신랄한 반어 등은 시의 흐름에 갑작스런 변전을 가져와 의미의 단일성을 깨뜨려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그가 사회에 비

13) Heinrich Heine: *Werke und Briefe in zehn Bänden*, Aufbau Verlag Berlin und Weimar, Bd. 1. 1980, S. 103.

이 시의 원래 제목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난 모르겠네, Ich weiß nicht, was soll es bedeuten」이다.

관을 가하고 투쟁을 전개할 때 구사하는 그의 특유한 문학 표현 수단이 되었다.

하이네가 정치시인으로서 투쟁적인 언론인으로서 억압 받는 민중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전사였다는 사실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하이네가 「고백, Geständnisse」에서 피력한 것처럼 자기 일생의 과업은 '민중의 해방(Emanzipation des Volkes)'이었다. 자신의 과업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의 시 「미아(迷兒, *Enfant perdu*)」는 다음과 같은 식귀로 끝나고 있다.

보초 한 명이 없어졌군! - 상처가 찢기운 채로 -
어떤 이는 쓰러지고, 다른 이들은 추격을 하는데 -
난 쓰러졌지만 분명 패(敗)한 것은 아니며, 나의 무기는
망가지지 않았네 - 나의 가슴만이 터졌을 따름일세.¹⁴⁾

그는 학창시절에 익힌 헤겔의 변증법으로 낙관주의적인 사회 발전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정의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를 위해 싸우겠다고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뿌리 깊은 불의(不義)와 세상에 널리 퍼진 어리석음과 그리고 악(惡)에 대한 투쟁!
이 성스러운 투쟁의 전우(戰友)로 저를 원하신다면 전 기쁜 마음으로 당신의 편
이 되겠습니다. 문학은 결국 보기 좋은 부수적 과제일 뿐이지요.¹⁵⁾

이렇게 투쟁 결의를 다진 하이네는 비극 「윌리엄 라트클리프, *William Ratcliff*」에서 도적의 소굴에서 나누는 대화를 통해 대담한 사회 비판가의 면모를 다음과 같이 보여준다.

라트클리프,
... 돈벌레와 같은 인간이 지나치게 호사하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분노에 사로
잡힌다.
... 이들은 배고픔에 못이겨 마지막 남은 속옷을 전당포에 맡기려고 탄식하며 느
릿느릿 걸어가는 사람을 우쭐대며 내려다 본다.

14) Heinrich Heine: *Werke und Briefe in zehn Bänden*, Aufbau Verlag Berlin und Weimar, Bd. 2, 1980, S. 124.

Ein Posten ist vakant! - Die Wunden klaffen -
der eine fällt, die anderen rücken nach -
Doch fall ich unbesiegt, und meine Waffen
sind nicht gebrochen - nur meine Herzen brach.

15) Heinrich Heine: a.a.O., Bd. 8, S. 51.

하이네가 1822년 12월 24일에 임머만(Immermann)에게 보낸 편지에 적은 내용임.

Kampf dem vierjährigen Unrecht, der herrschenden Torheit und dem Schlechten! Wollen Sie mich zum Waffenbruder in diesem heiligen Kampfe, so reiche ich Ihnen freudig die Hand. Die Poesie ist am Ende doch nur eine schöne Nebensache.

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배부른 자와 기아에 허덕이는 자로 나뉘어져 서로 거칠게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¹⁶⁾

그의 詩와 드라마에 나타나는 이러한 사회 비판적 태도는 그의 산문에서는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그는 출중한 산문 작가로 내용에 앞서 어휘 구사에 천재적 재능을 발휘하였다. 그의 산문에 나타난 문체는 근대 저널리즘의 모범이 되었으며, 어느 신문에서나 한 면을 차지하는 문예란은 그에게서 유래한 것이다.

그는 흥미거리를 느슨한 이야기체로 엮어 문예란에 투고하는 산문을 당대의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무기로 삼기에 가장 적합한 문학 형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문예란에 투고한 산문에는 신랄한 사회비판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는 <라인-베스트팔렌 신문, Rheinisch-Westphälischer Anzeiger>의 문예란에 기고한 「베를린에서의 편지들, Briefe aus Berlin, 1822」에서 프로이센의 수도인 베를린의 사회 생활에 관해 보고하고 있다. 이 기고문은 재미있는 잡담조로 문예란에 적합하도록 서술된 문화비판적 성격의 산문으로 이미 몇몇 부분에서는 봉건주의 체제 하에서의 자본주의의 모순을 지적하고 강화되어가는 독일 국수주의를 지적하고 있다. 이 기고문은 후일 문화비판과 사회비판을 주제로 하여 독자에게 큰 영향을 끼친 「여행 화첩, Reisebilder」의 전(前)단계를 이룬다.

「여행화첩, Reisebilder」은 산문연작(連作)물로 제1부는 「하르츠 기행, Harzreise, 1826」으로 시작한다. 「하르츠 기행」은 「여행화첩」에 들어있는 작품들 중에서 인기를 누렸던 작품에 속한다. 이 작품에서 하이네는 괴팅겐을 출발하여 클라우스탈-첼러펠트(Klausthal-Zellerfeld)와 고슬라르(Goslar), 브로켄(Brocken)을 지나 일젠부르크(Isenburg)로 가는 여행을 서술하고 있다. 그는 이 작품에서 여행 중에 보고 느낀 것을 적고 있으며 풍자와 기지를 동원하여 속물적인 독일 시민계급을 비판하기도 한다. 그는 하르츠 주민들의 사고방식과 생활습관을 상세히 묘사하면서

16) Heinrich Heine: a.a.O., Bd. 2, S. 570.

Ratcliff.

... und einen Mann ergreift der Zorn,
wenn er betrachtet, wie die Pfennigseelen,
die Buben, oft im Überflusse schwelgen ...
und stolz herabsehn auf den Hungerleider,
der, mit dem letzten Hemde unterm Arm,
langsam und seufzend nach dem Leihhaus wandert.

Tom:

So dacht ich auch, und teilte ein die Menschen
in zwei Nationen, die sich wild bekriegen:
nämlich in Satte und in Hungerleider.

“이들의 삶이 정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동감 넘치는 참된 삶이다”라고 적으면서 인간 평등 사상을 피력하고 있다.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진술에 속한 다음과 같은 구절은 자본주의 계급 체계의 모순에 대한 통찰을 나타내 보인다.

사람들은 동등하게 태어났으며 모두가 귀족이다.¹⁷⁾

이 작품에서 가장 뛰어난 점은 자연을 생동감 있고 수채화처럼 정교하게 묘사하여 독자가 직접 자연을 대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게 한 것이다.

『여행화첩』 제2부가 시작되는 「북해」에서 그는 괴테와 나폴레옹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고 있다. 그는 괴테의 ‘사물을 보고 느끼는 입체적 감각과 사고 방식’ 그리고 나폴레옹의 ‘시대를 파악하고 대중을 이끄는’ 경륜에 감탄을 보냈다. 이 작품에서도 하이네는 기독교와 독일 봉건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1829년에 출간되기 시작한 『여행화첩』의 3부는 하이네의 이탈리아 여행기를 담고 있다. 3부의 여행기들에는 하이네의 성숙한 사회와 정치를 바라보는 안목이 나타나 있다. 『여행화첩』의 마지막 부분인 「영국 단상(斷想), Englische Fragmente, 1828」에서 그는 런던에서 벌어지고 있는 빈부간의 심한 갈등을 제시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철저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하이네는 1830년 11월에 『여행화첩』의 결말 부분을 쓰면서 ‘파리의 그 위대했던 일주간(die große Woche von Paris)’을 상기시키고 독일민족에게도 혁명에 의한 해방의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하이네는 독일민족을 향해 다음과 같이 외쳤다:

… 나의 민족이여, 그대의 의지만이 유일하게 합법성을 띠는 권력의 원천이다. 그대들이 질곡 속에서 허덕인다 할지라도 결국 정의로운 그대들이 틀림없이 승리를 거둘 것이다. 해방의 날이 다가온다. 새시대가 시작된다 … 18)

그는 독일인에게 프랑스인을 본받아 ‘자유라는 위대한 학문’의 길로 매진하여 이제는 철학에서 정치로 나아갈 것과 꿈을 행동으로 옮길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인간 평등의 이념(Idee der Menschengleichheit)’에 충실한 삶을 영위하려 노력했고 작품

17) Heinrich Heine: a.a.O., Bd. 3, S. 19.

Alle Menschen, gleichgeboren, sind ein adliges Geschlecht.

18) Heinrich Heine: a.a.O., Bd. 3, S. 486.

… dein Wille, mein Volk, ist die alleinig rechtmäßigen Quelle aller Macht. Wenn du auch in Fesseln darniederliegst, so siegt doch am Ende dein gutes Recht, es naht der Tag der efreigung, eine neue Zeit beginnt …

을 통해 독일의 정치 변혁과 사회변혁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목적으로 파리에 망명하기로 결심한다. 이렇게 하여 그는 정치 투쟁의 전면에서 서게 되었다.

나는 무기를 모두 내려 놓을 것인가, 평생 투쟁을 전개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난 후자를 택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전혀 경솔한 것이 아니었다.¹⁹⁾

하이네는 유럽 자유주의의 중심 도시인 파리에서 예술계를 위시한 각 분야의 유명 인사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었으며 특히 생 시몽(Saint Simon)의 유토피아적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생 시몽 추종자들과 친분을 두텁게 하였다.

그는 1831년 12월에서 1832년 9월까지 보도한 통신 기고문을 1832년 10월에 「프랑스 상황, Französische Zustände, 1832」이라는 이름으로 발간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다양한 정치 문제들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는 본문에서 프랑스의 시민왕 루이 필립(Louis Philippe)을 에워싼 지배 계층과 그들의 정적(政敵)들을 비롯하여 영국의 정치와 독일의 정치상황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또한 시사적인 정치문제와 아울러 공화제의 본질이나 혁명이 사회 발전에 대해 지니는 의미 등에 대해서도 자신의 사상을 피력하였다.

1832년 6월 5일과 6일에 파리의 시가지에서 전개된 공화주의자들의 봉기를 격양된 어조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개인의 행동이 위대해 보이던 시대는 완전히 지나가버린 것 같아 보인다; 군중, 정당(政黨), 대중들이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다 ... 20)

민중의 힘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 놓을 수 있다는 프랑스 현지의 보도는 독일 당국을 당혹케 만들어 1935년 그에게 금서령이 내려졌다. 그는 「살롱」 3권의 서문인 「밀고자에 대하여, Über den Denunziaten, 1837」라는 글에서 금서령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 그는 작가가 어떻게 하면 인류를 보다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고 보다 행복하게 만들 수 있나를 생각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고 방식을 통해 작가는 인류의 운명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진보적인 작가들을 고발한 멘첼을 위선적인 이중 인격자라고 공격하였고 이와 함

19) Heinrich Heine: a.a.O., Bd. 8, S. 421.

Ich hatte die Wahl zwischen gänzlichem Waffenniederlegen oder lebenslänglichem Kampf, und ich wählte diesen, und wahrlich nicht mit Leichtsin.

20) Heinrich Heine: a.a.O., Bd. 4, S. 494.

Überhaupt scheint die Weltperiode vorbei zu sein, wo die Taten des einzelnen hervortragen; die Völker, die Parteien, die Massen selber sind die Helden der neuern Zeit ...

게 독일 국수주의자들에게도 공격의 화살을 당졌다.

프랑스 체류 초기에 정치 비판과 문화 비판에 몰두하던 그는 금서령이 내린 이후로 「낭만파, Die romantische Schule, 1836」와 같은 문학 평론과 「슈바벤의 거울, Der Schwabenspiegel, 1838」 같은 논문 및 오락물 집필에 몰두하였다.

그러나 그는 1840년에 「루드비히 뵘네-한편의 회고록, Ludwig Börne-Eine Denkschrift, 1840」을 집필하면서 정치 투쟁의 전면으로 다시 나선다. 1840년을 분기점으로 그는 문학 평론에서 정치 비판으로 넘어가 초기에 보였던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정치 선동에 몰두하는 정치 작가로 되돌아갔다. 그는 이 저서에서 공화주의자들이 정치 현안에 대해 유연성 없이 경직되게 대처함으로써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공격을 하였다. 그리고, 뵘네를 추종하는 자들의 정견(政見)을 소시민적 급진주의에 불과하다고 논평하면서 그것은 민주주의 혁명을 저해하는 위협 요소라고 단정했다. 그러면서 하이네는 자신의 정치 철학에서 나온 조국관과 민주주의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는 이 시기에 ‘정치적인 침묵’은 끝났다고 선포하면서 진보주의적인 자신의 신조를 전파하려 했고 政治詩(politische Poesie)²¹⁾를 창작하여 민족의 통일과 자유를 갈구하며 정치적 반동세력에 항거하였다.

하이네는 1843년에서 1844년에 걸쳐 독일에 들렀는데, 이 시기에 독일에서 추방당한 사람들과 마르크스(Marx), 루게(Ruge), 헤스(Hess)와 같은 독일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진보적인 잡지 <독·불 연감, Deutsch-Französische Jahrbücher>과 신문 <전진, Vorwärts>의 발간을 논의하면서 민주주의적인 혁명과 사회주의 운동을 통합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하여 사회주의 운동과 인연을 맺게 된 하이네에 대해 엥겔스는 1844년 한 영국 잡지에 ‘독일의 현존 작가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하이네가 독일 사회주의자들과 제휴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하이네는 1843년부터 1848년 사이에 집필된 정치시들을 「신시집」에 포함시키거나 신문 <전진>에 실었는데 이 정치시들에는 그가 독일의 좌익계 지도자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받은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는 정치시 「중국 황제, Der Kaiser von China」, 「기형아, Der Wechselbalg」, 「새로운 알렉산더, Der neue Alexander」

21) 정치시는 나폴레옹 치하의 예국시에서 출발하여 1848년 3월 혁명이 발발하기 이전의 10여년 간에 걸쳐 융성기를 맞은 시문학이다. 문학의 정치화가 급진전되던 1840년대에 문학과 정치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작가들의 명제는 거부되고 정치 현실을 예술과 문학의 대상으로 상정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예술시대’의 미학적 유산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며 문학의 정치 참여는 정당화되었다. 따라서 정치시에는 정치 현실에 대한 불만과 혁명 투쟁에 대한 결의로 가득했다. 작가가 정치적 입장을 취할 때 당국으로부터 환영과 사례를 받거나 박해와 처벌을 받는 것이 상례였다. 이 시기의 정치 시인들은 박해의 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 정치 시인들을 위시하여 신조를 같이 하는 많은 독일인이 인접국가로 망명하였다.

에서 프로이센의 왕을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으며 「루드비히 왕에게 바치는 송가, Lobgesänge auf König Ludwig」에서는 바이에른 왕을 공격하고 있고 「신조, Doktrin, 1844」라는 정치시에는 민주주의자이자 정치작가로서의 자기 생각을 뚜렷하게 표명하고 있다. 이 시에서 그는 헤겔의 변증법을 신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혁명적인 정치 운동에 공감을 표하면서 대중을 혁명 투쟁의 대열에 동참하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북을 울려 사람들을 잠에서 깨워라,
청년의 혈기로 기상 나팔을 불어라,
북을 치며 계속 진진하라,
이것이 학문의 전부다.²²⁾

그의 「신시집」은 감미로운 애정시를 수록하였던 초기의 낭만주의 경향의 시와는 거리가 있는 시집으로 정치시뿐만 아니라 독일의 정치 상황을 비판하는 많은 세태시(Zeitgedichte)²³⁾도 실었다. 그는 세태시로 인해 오늘날까지 정치 참여 작가로서의 명성을 떨치고 있다.

「슐레지언 직조공들, Die schiesischen Weber, 1844」이란 시는 프롤레타리아가 자본주의를 파묻어 버릴 무덤을 파고 있다고 하면서 지배 계급에 대해 저주를 퍼붓고 있다. 이 시는 발표되자 곧 뼈라로 전국에 퍼져나갔다. 일상어의 인상적인 억양을 활용하여 페터스발다우(Peterswaldau)와 랑겐빌라우(Langenbielau)에서 봉기한 직조공들의 가난한 생활과 비참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환기시켜 주고 있다.

흐릿해진 눈망울엔 눈물도 메말라 버렸는데,
베틀에 걸터 앉아 이를 갈고 있는 자 이틀일세.²⁴⁾

하이네는 이 시에서 지배 계급에게 그들을 몰락시킬 프롤레타리아의 힘을 예언

22) Heinrich Heine: a.a.O., Bd. 1, S. 319.

Trommle die Leute aus dem Schlaf,
trommle Reveille mit Jugendkraft,
marschiere trommelnd immer voran,
das ist die ganze Wissenschaft.

23) 그의 세태시는 1840년대에 쏟아져 나온 정치시들과는 성격이 달랐다. 정치시가 작품의 예술성을 도외시하고 정치 성향을 강하게 부각시키는 선동시였던 것에 반하여 하이네의 세태시는 예술성을 중시하면서 정치 현실을 객관적으로 비판하려는 경향이었다.

24) Heinrich Heine: a.a.O., Bd. 2, S. 343.

Im düstem Auge keine Träne.
sie sitzen am Webstuhl und fletschen die Zähne.

이나 하듯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낡은 독일이여, 우리는 그대의 수의를 찢다,
우리는 그 속에 3중(三重)의 저주를 짜 넣는다,
우리는 찢다, 우리는 찢다.²⁵⁾

이 시에 깔려 있는 복수에 가까운 혁명적인 행동 촉구는 사회주의 건설기뿐만 아니라 2차 대전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1848년 이후에 나온 정치시들에서 하이네는 일관된 정치적 신조를 보여주며 이전보다 더 예리한 통찰력으로 자본주의 사회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하이네는 1848년에 심화된 병 때문에, 그의 문학 발전에 결정적인 전환기를 맞았다. 이 시기 즉, 1845년부터 1851년 사이에 집필된 서정시를 모은 「민요조의 설화시, Romanzero」에는 고통과 고발이 통절한 음조로 스며들어 있고 자신의 주관적인 고백을 객관화하여 인류의 문제와 연결지우는 독창적인 창작 방식이 발휘되고 있다. 이 시모음집은 「역사, Historien」, 「비탄, Lamentation」, 그리고 「히브리어의 선율, Hebräische Melodien」 등 3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이네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역사를 관류하는 인류의 의미와 자기 자신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이 시모음집에서 정치 상황에 대해 여전히 비난을 퍼부으며 젊은 날의 자신의 이상과 신념을 토로하고 자신의 삶은 인류 해방을 위한 투쟁이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이 시집은 죽음을 앞둔 병자의 모든 체념을 넘어서 자신의 투쟁 동료들에게 자신의 신념을 밝히고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동지들의 신조는 당당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전달하며 끝을 맺고 있다.

하이네는 낡은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공산주의자들과 연대를 했지만 공산주의자들은 그의 눈에 예술 적대자로 비쳤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공감을 표하지 않았다고 그의 시집 「고백」에 담고 있다.

칼 페르디난트 구쯔코우(Karl Ferdinand Gutzkow, 1811-1878)는 극작가²⁶⁾,

25) Ebenda.

Altdeutschland, wir weben dein Leichentuch,
wir weben hinein den dreifachen Fluch,
wir weben, wir weben.

26) 그의 많은 드라마 중에서 사회 비판적인 예술가 드라마(Künstlerdrama) 「리하르트 자파게, 어머니의 아들, Richard Savage, Sohn einer Mutter, 1839」는 독일 연극 무대를 석권하여 발표된 지 6개월도 못되어서 18개 독일 극장의 공연 목록에 오르게 되었고, 그의 소극(笑劇) 「편발과 검, Zopf und Schwert, 1844」은 프로이센의 호엔촐레른(Hohenzollern) 왕가와 결부된 프로이센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로

소설가, 언론인으로서 다방면에 걸쳐 재능을 발휘하였던 작가이다. 그는 사회 개혁을 요구하는 ‘청년 독일파’의 대표적 인물로서 독일 사회 소설²⁷⁾의 초석을 다졌다. 그는 자유주의적 문학 비평가 겸 언론인으로서²⁸⁾ 시사적인 정치 문제를 예술과 문학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 검열을 교묘하게 피하는 위기 관리에 능숙한 측면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1835년 장편 소설 「발리, 회의(懷疑)녀, Wally, Die Zweiflerin」²⁹⁾를 발표하여 당대의 평론가 멘첼로부터 부도덕하고 독신(篤信)적인 작품이라는 비난을 받아 금서령을 받았으며, 1836년 1월에는 ‘기독교 종교 집단의 신앙에 대한 불경(不敬)한 묘사(verächtliche Darstellung des Glaubens der christlichen Religionsgemeinschaften)’를 이유로 2개월 반 동안의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이 소설의 주인공 발리(Wally)는 시민 생활에 지루함을 느껴 세속화되고 정상에서 벗어나 있으며 남자 주인공 케자르(Cäsar)도 역시 시민 생활에 싫증을 느끼며 신의 존재에까지 회의를 느끼고 있다. 이들의 기본 태도에는 민주적 성향이 깔려 있는데, 케자르는 발리에게 자신의 민주적 성향을 이렇게 나타내 보인다.

당신은 내가 민주주의에 이만큼 몸 담고 있으면서, 이 사실을 노출시켜 내가 오두막 집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생각지는 마시오.³⁰⁾

케자르에 뒤지지 않을 만큼 시민적 민주 성향을 지닌 발리는 ‘청년 독일파’의 몇 작품을 읽고 그녀가 받은 감동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당시에 가장 많이 공연된 작품 중에 끼인다.

- 27) 그의 장편 소설 「로마의 마법사, Der Zauberer von Rom, 1858-61」에 등장하는 수도사 보나벤투라(Bonaventura)는 리베리우스(Liberius) 2세가 되어 카톨릭을 로마 교황의 교권주의에서 해방시켜 정화된 카톨릭으로 만들고 있다. 구즈코우는 이러한 인물을 통해서 당시 피우스(Pius) 9세의 교권주의 하에서 예수회의 수도사를 귀신들린 사람이나 혹은 개화된 사람의 적으로 서술하는 편견에 사로잡힌 문학이나 인쇄물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독자를 깨우쳐 주려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사회 소설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 28) 그는 1831년에 잡지 <저널-문학 논단(論壇), Forum der Journal-Literatur>을 창간하였다. 그의 이러한 활동은 코타(Cotta)가 펴내는 문학 잡지의 <조간 신문, Morgenblatt>의 편집을 맡고 있는 멘첼의 눈에 띄어 그와 함께 일하도록 슈투트가르트(Stuttgart)로 초청되어 갔다.
- 29) 이 장편 소설은 여성의 성적 해방을 주제로 다루면서 신학에 반론을 펴고 기독교에 저항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소설에는 시대 정신을 대표하는 많은 사람들의 글이 인용되고 있다. 슈바프, 울란트, 샤밋스 등의 후기 낭만주의자들에서부터 청년 독일파의 작가들과 발자크(Balzac)와 생 시몽주의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작품에 인용되거나 혹은 이들을 세태 풍자에 활용되고 있다. 이 작품에는 낭만주의의 열정적인 언어가 가득하면서도 종교 철학적인 서술에서는 무미 건조하고 불확실한 언어가 나타난다.
- 30) In: 조창섭: 상계서, S. 171.

Glauben Sie nicht, daß ich die Demokratie so weit treibe, und auf Entdeckungen in den Hütten ausgehe.

빈바르크는 매우 민주적이다. 나는 내가 귀족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빈바르크를 읽고 나서부터 깜짝 놀라 그 점을 생각하게 되었다.³¹⁾

신(神)의 존재에 대한 회의에 빠져 있는 발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한다.

종교란 무엇일까! 천지 창조가 무엇일까! 영원 불멸이란 무엇일까! 붉은 옷을 입을지 푸른 옷을 입을지 이것이 문제이다. 마텔랑 형으로 머리를 늘어뜨리는 것이 좋을지, 중국식으로 머리를 정수리까지 빗어 올리는 것이 좋을지?³²⁾

여주인공 발리는 레싱의 「볼펜뷔틀러의 단상」을 읽고 난 후에 심한 회의에 빠져 들어 겨우 6개월을 버티다가 비수로 가슴을 찢어 죽는다. 대화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이 소설에는 자유주의 사상에 입각한 여성의 성적 해방과 반기독교적 성향이 깃들여 있어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직업 작가로서 괴테보다 많은 작품을 창작하였으며 문학 이론의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그는 1849년부터 혁명의 시기와 반혁명의 시기를 동시에 펼쳐 보일 수 있는 새로운 소설 기법인 ‘병렬적 소설 기법(Roman des Nebeneinander)’³³⁾을 개발하여 9권으로 된 방대한 장편 소설 「정신의 기사들, Die Ritter vom Geiste, 1850-51」을 그의 이 새로운 소설 기법을 이용해 창작하였다. 그는 이 소설의 서문에서 자신의 소설 창작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과거의 장편 소설은 ... 정교하게 짜 맞춘 사건을 시간 순에 따라 묘사한다. ... 새로운 장편 소설은 병렬적으로 묘사된 장편 소설이다. 이때 전 세계가 소설 속에 투영된다. 거기엔 왕과 거지가 마주치게 된다.³⁴⁾

이 소설에서 ‘정신의 기사들’이 표방하는 이념은 현실과 거리가 먼 이상주의와

31) In: Ebenda.

Ich habe nie gewußt, daß ich von Adel bin, aber mit Schrecken denke ich daran, seit ich diesen Autor lese.

32) In: Ebenda.

Was Religion! Was Weltschöpfung! Was Unsterblichkeit! Roth oder blau zum Kleide, das ist die Frage. Ob's besser ist, die Haare zu tragen à la Madelaine oder sie zusammen kämnen zu chinesischem Schopfe?

33) 소설의 줄거리를 시간 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개하지 않고 줄거리를 병렬(並列)적으로 전개하여 시대사(Zeitgeschichte)를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이고,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회 상황을 병렬적으로 전개하는 소설 기법.

34) In: 조창섭: 상계서, S. 174.

Der Roman von früher, ... stellte das Nacheinander kunstvoll verschlungener Begebenheiten dar. ... Der neue Roman ist der Roman des Nebeneinander. Da liegt die ganze Welt! ... Da begegnen sich König und Bettler!

민주주의적인 것과 반봉건적인 사상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념이 이 작품의 장점일 수는 없다. 대신에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려는 기득권 세력에서부터 시대의 숨결을 파악하여 동참하려는 미국에서 돌아온 역이민자들과, 사회주의적 의식이 싹트고 있는 하층민과, 소요를 일으키는 무명의 다수 대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등장하여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정치적 신념을 주장하고 또한 나름대로 지니고 있는 상이한 종교관을 주장한다는 것이 바로 이 작품의 장점이다.

구즈코우는 「발리 회의녀」와 비극 「우리엘 아코스타, Uriel Acosta」에서 종교의 자유와 여성 해방을, 「편발과 검, Zopf und Schwert」에서 현대적인 입헌국가의 건설을, 「위선자의 원형, Urbild des Tartüffe」에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여 청년 독일파가 즐겨 사용하던 주제를 다루었다.

구즈코우는 문학 평론가³⁵⁾로서 당대의 문단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어서 유능한 후진을 많이 발굴하기도 하였으나 그의 학문적 논쟁은 종종 감정적 논쟁의 차원으로 비약되는 경우가 있어 많은 적을 가지게 되었다. 그 때문에 그는 만년에 피해망상과 고독에 빠져들어 괴로움을 겪었다. 그는 국내의 문학 발전뿐만 아니라 인접국과의 문학적 유대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Ⅲ. 결 론

‘모든 인문사회과학은 그 사회의 산물로서 그 사회의 일부분이다’³⁶⁾라는 하버마스의 주장이 뒷받침하고 있듯이 문학도 역사와 사회 현실에 뿌리내려 틀 지어지고 배태(胚胎)되어진 것이다. 3월 전기 시대에 형성된 ‘청년 독일파’도 역사와 사회 현실의 산물로, 불만스러운 사회 현실을 비판하거나 더 나아가 거부함으로써 사회 변혁의 계기를 마련하여 사회 진보를 달성하려는 동기에서 출발하고 있다.

문학이 역사와 사회 현실의 산물이라고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문인들은 직업적인 측면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특정 계급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보다는 보편적 이익을

35) 1846년부터 1849년까지 그는 티크(Tieck)의 후임으로 드레스덴 궁정 극장의 연극 고문 겸 연극 평론가가 되었다. 이 자리를 얻게 된 그는 특출한 언론인적 재능을 발휘하여 당대의 평론가 중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확보하였다. 평론가로서 그는 당시의 작품들을 평가하면서 자주 과격한 언어를 구사하여 작품을 비난하기도 하였다. 하이네도 그러한 비난을 받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하여 그는 헤겔 좌파와 심한 반목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그는 당대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유능한 작가들을 발굴하여 후원하는 뛰어난 예술적 안목을 가진 평론가이기도 하였다. 뷔히너(Büchner)의 천재성을 인정하여 그의 드라마 「당통의 죽음」을 <불사조, Phönix>에 실어준 사람이 바로 그였다.

36) J. Habermas: *Erkenntnis und Interesse*, 5. Aufl., Frankfurt/M. 1979, S. 59ff.

대변하면서 언어 예술이라는 문학의 심미(審美)적 영역에 안주하는 것이 예사이지만 ‘청년 독일파’와 같은 참여 문인들은 사회의 변혁이나 변화를 통하여 사회 진보를 꾀하기 때문에 기독교 세력과의 충돌이 불가피해진다.

‘청년 독일파’가 문학의 한 유파로 존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참여 문인의 속성에서 유래하고 있다.

금서령을 받은 라우베, 문트, 빈바르크와 같은 작가들은 봉건 사회의 폐해를 비판하고 개선하여 입헌군주제를 관철하려 하였으며 이러한 정치 변혁에 만족하려는 작가였다. 이들 중에 하이네만은 혁명적인 민주주의자로 발전하였고 정치적인 모순과 사회적인 모순이 혁명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문학이 지적 유희여서도 안되고 시간 선용을 위한 도구여서도 안되며 대리 경험을 통한 대리만족의 수단이어서도 안되며, 사회 개혁을 통하여 인간 해방을 쟁취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론 형성의 필요성을 느껴 신문과 잡지의 문예란에 문학의 중요 장르들뿐만 아니라 기행문(Reiseberichte)과 여행 삽화(Reisebilder)를 실어 외국의 정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독자들의 정치 의식을 고취하고 정치 투쟁에 동참하도록 유도하였다. 특히 길이가 짧아 읽기에 부담이 없는 시가(詩歌, Lieder)가 애용되었다.

이들은 문학 장르를 정치 투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예술의 존재 법칙도 무시하였다.

하이네는 낭만주의 영향 하에서 자신의 독특한 창작 기법을 개발하여 19세기 중엽에 독일의 대표적 작가로 부상하였다. 그는 수준 높은 서정시인으로 그의 시에는 소박한 민요조의 낭랑한 음조가 흘러 나오는가 하면 위력을 과시하는 위대한 자연의 모습이 전편을 매우기도 한다. 재치가 번득이는 유머와 신랄한 반어 등은 시의 흐름에 갑작스런 반전을 가져와 의미의 단일성을 깨뜨려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의 정치시나 세태시는 독일 문학의 장르를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다. 또한 그는 출중한 산문 작가로서 내용에 앞서 어휘 구사에 천재적 재능을 발휘하였다. 그의 산문에 나타난 문체는 근대 저널리즘의 모범이 되었다.

구쓰코우는 괴테보다도 더 많은 작품을 창작한 다작가로서 작가, 평론가, 언론인으로서 다방면에 걸쳐 재능을 발휘하면서 당대의 문단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쳤다. 그의 자유주의 사상은 여성의 육체 해방이나 독신적 태도에까지 확대되었고, 문학 이론 분야에서도 독특한 ‘병렬적 소설 기법’을 개발하여 독일 문학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학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미는 ‘청년 독일파’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라우베는 프랑스 생 시몽주의의 영향을 드러내 보이는 삼부작 소설 『청년 유럽, Das junge Europa』을 집필하면서 대담소설(Konversationsroman)과 서간체 소설

(Briefroman) 등과 같은 상이한 창작 요소들을 혼합하였기 때문에 이 소설은 ‘청년 독일파’의 간판격에 해당하는 작품이라는 칭송을 들었다. 그러나 그는 민주주의 방법을 통해 통일 국가를 형성케 하는 것이 문학의 과제라는 창작품의 시사성 때문에 많은 창작 활동과 문체의 특성, 창작 기법 등에도 불구하고 ‘청년 독일파’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여 오늘날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다.

문트도 자신이 창작한 장편 소설과 노벨레를 문학 이론서와 문학사와 같은 저서로 집필하였지만, 빈바르크와 마찬가지로 시사성 때문에 시대를 초월하지 못하는 작가군에 속하게 되었다.

금서령을 받지 않은 참여 문인들로는 루드비히 뵘르네(Ludwig Börne), 호프만 폰 팔러스레벤(Hoffmann von Fallersleben), 페르디난트 프라이리히라트(Ferdinand Freiligrath), 게오르크 헤르베크(Georg Herwegh), 게오르크 루트비히 베어트(Georg Ludwig Weerth)와 아돌프 글라스브레너(Adolf Glassbrenner), 게오르크 뷔히너(Georg Büchner) 등이 있다.

뵘르네는 금서령을 받은 작가들보다 훨씬 강도 높게 사회 비판을 가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던 작가였고, 팔러스레벤은 혁명적인 정치 투쟁을 통해 시민의 자유와 통일을 쟁취하자고 호소했던 작가였으며, 베어트는 봉건 절대주의 군주국인 프로이센에 대한 투쟁을 자본주의적인 사회 질서에 대한 비판과 결부시켰던 작가이다. 독일 문예 사조에서는 이들을 ‘청년 독일파’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논문의 분량을 감안하여 이들에 대한 연구는 제외하게 되었다.

‘청년 독일파’가 문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 정치를 개혁하고 사회를 변화시켜 보려 했던 시도는 1835년 금서 조처 이후에 정치적인 제약 속에서 명맥을 유지하다가 1848년의 혁명 때에 그 절정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혁명의 실패로 하이네를 제외한 대부분의 작가들은, 정치 현실로부터 등을 돌리고 체념하거나 지방주의(Provinzialismus)로 빠져 들어 시적 사실주의로 나아가거나 정치 현실을 외면하기 위해 외국으로 떠나 버렸다. 그러나 구쯔코우는 1848년 이후에도 ‘청년 독일파’의 문학 경향을 그대로 이어 나갔다.

‘청년 독일파’의 생성과 발전, 쇠퇴로 이어지는 일련의 문학사적 사건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참여 문학도 순수 문학과 마찬가지로 존재 이유를 지니고 있긴 하지만 시사성에만 치우치게 되면 시대를 초월하는 예술 작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참고 문헌

- Werner Conze und Volker Hentschel (Hrg.): *Ploetz Deutsche Geschichte*, 2. Aufl., Verlag Ploetz, Freiburg, Würzburg, 1980.
- Carola Stern und Heinrich A. Winkler (Hrg.): *Wendepunkte deutscher Geschichte 1848-1990*, Fischer Taschenbuch Verlag, Frankfurt/M., 1994.
- Horst Albert Glaser (Hrg.): *Deutsche Literatur. Eine Sozialgeschichte*, Bd. 6, Vormärz, Rowohlt Verlag, Reinbeck, 1989.
- Karl Marx: *Zur Kritik der Hegelschen Rechtsphilosophie*. Einleitung. In: *Karl Marx und Friedrich Engels: Werke* Bd. 1., Berlin, 1956.
- Friedrich Engels: *Weerth*. In: *Karl Marx und Friedrich Engels: Über Kunst und Literatur*, Berlin, 1956.
- Friedrich Engels: *Revolution und Konterrevolution in Deutschland*. In: *Karl Marx und Friedrich Engels: Werke*, Bd. 8. Berlin, 1960.
- J. Habermas: *Erkenntnis und Interesse*, 5. Aufl., Frankfurt/M., 1979.
- Heinrich Heine: *Werke und Briefe in zehn Bänden*, Aufbau Verlag, Berlin und Weimar, 1980.
- L. Wienbarg: *Zur neuesten Literatur*, Mannheim, 1835.
- L. Wienbarg: *Ästhetische Feldzüge. Dem jungen Deutschland gewidmet*, Hamburg, 1834.
- H. Laube: *Das neue Jahrhundert*, Bd. 2, Leipzig, 1833.
- Wolfgang Kayser: *Das sprachliche Kunstwerk*, 13. Aufl. Bern und München, 1968.
- H. Pranke: *Kommunikation der Gesellschaft*, Regensburg und Münster, 1968.
- H. Jauß: *Paradigmawechsel in der Literaturwissenschaft*. In: V. Zmegac (Hrg.), *Methoden der deutschen Literaturwissenschaft*, Frankfurt/M., 1972.
- Georg Ried: *Wesen und Werden der deutschen Dichtung*, Verlag M. Lurz, München, 1972.
- Hans Jürgen Geerdts (Hrg.): *Deutsche Literaturgeschichte in einem Band*, Volk und Wissen Volkseigener Verlag Berlin, 1971.
- Karl Kunze und Heinz Obländer: *Grundwissen Deutsche Literatur*, Ernst Klett Verlag, Stuttgart, 1976.

- Kurt Böttcher und Hans Jürgen Geerds: *Kurze Geschichte der deutschen Literatur*, Volk und Wissen Volkseigener Verlag, Berlin, 1987.
- Lerke von Saalfeld, Dietrich Kreidt und Friedrich Rothe: *Geschichte der deutschen Literatur*, Droemer Knauer Verlag, München, 1989.
- Helmuth Nürnberger: *Geschichte der deutschen Literatur*, 24. Aufl. Bayerischer Schulbuch Verlag, München, 1992.
- Joachim Bark, Dietrich Steinbach und Hildegard Wittenberg (Hrg.): *Epochen der deutschen Literatur*, Ernst Klett Schulbuch Verlag, Stuttgart, Berlin, 1989.
- Werner Kohlschmidt und Wolfgang Mohr (Hrg.): *Reallexikon der deutschen Literaturgeschichte*, 2. Aufl. Bd. 1. 2. 3. 4. Walter de Gruyter & Co. Verlag, Berlin, 1965.
- Walter Jens (Hrg.): *Kindlers neues Literaturlexikon*, Bd. 7 u. Bd. 11, Kindler Verlag, München, 1990.
- 조창섭: 현실주의 독일문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서울, 1994.

<Zusammenfassung>

Untersuchung über 'Das junge Deutschland'

- In Bezug auf die durch den Bundestagsbeschluß verbotenen Schriftsteller -

Cho, Chang-sub

Diese Abhandlung hat zum Ziel, die Schriften der durch den Bundestagsabschluß verbotenen Jungdeutschen zu untersuchen.

Die literarische Bestrebungen der deutschen Schriftsteller im Vormärz offenbarte sich in der Entwicklung einer Gruppe junger Dichter, die später unter dem Namen 'Junges Deutschland' zusammengefaßt wurde.

Dieser Name, zuerst von Wienbargs ästhetischer Schrift 'Ästhetische Feldzüge, Dem jungen Deutschland gewidmet', im Umlauf gebracht, erhielt politisch-literarische Bezüge, denn die Jungdeutschen sich gegen die herrschenden geistigen und gesellschaftlichen Verhältnissen empörten und sich vom klassisch-romantischen Vorbild lossagten und Befreiung von staatlichen, religiösen und moralischen Bindungen forderten.

Als Folge einer Denunziation Wolfgang Menzels wurden die Schriften der Jungdeutschen durch den berüchtigten Bundestagsabschluß vom 10. Dezember, 1835 in Deutschland verboten, da sie sich bemüht hätten, wie es darin hieß, "die deutsche Religion auf die frechste Weise anzugreifen, die bestehenden sozialen Verhältnisse herabzuwürdigen und alle Zucht und Sittlichkeit zu zerstören." Die Werke Heinrich Heines, Karl Gutzkows, Heinrich Laubes, Rudolf Wienbargs und Theodor Mundts waren in das Verbot mit einbezogen.

Sie alle hatten sich vorgenommen, aus der Literatur ein agitatorisches Kampfmittel zu machen, um Deutschland nach dem Vorbild Frankreichs im liberal-demokratischen Sinne umzugestalten. So verbreiteten sie in ihren Werken revolutionären Ideen.

In ihren Werken wurden vorzugsweise folgende Themen behandelt:

- 1) Die Beseitigung der Standesunterschiede
- 2) Die Forderung nach einem modernen Verfassungsstaat
- 3) Die Freiheit der religiösen Überzeugung
- 4) Die Forderung nach Pressefreiheit
- 5) Die Forderung nach der Emanzipation der Juden und der Frauen

Mit diesen Themen forderte die Jungdeutschen eine freie Entfaltung des Menschen. Sie machten sich aber in ihrer Kritik der feudalen Zustände nicht den Standpunkt der unterdrückten Volksmassen zu eigen. Nur wenige Ausnahme blieben Sie auf der Stufe kleinbürgerlichen Oppositionsliteraten und gelangten zu keinen bleibenden literarischen Leistungen.

Der revolutionäre literarische Aufschwung konnte auch nicht weitergeführt werden, weil die Jungdeutschen nach dem Verbot ihrer Schriften von 1835 sich beeilten, mit der preußischen Regierung ihren Frieden zu schließen. Heine vertrat weiterhin in seinen Werken den Gedanken einer revolutionären Demokratie und Gutzkow versuchte noch nach 1848 seinen jungdeutschen Standpunkt zu vertreten.